

향토민속문화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연구 -면천진달래민속축제를 중심으로-

이 인 화*37)

A Study on Tourism Resource Systematization of Folk-custom Culture

Lee, Inn-Wha

I. 서론

문화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으나 그 시대에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의 최선, 최고의 생활 방식이다. 그러므로 최고로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운 진선미로 살 때 가치가 있다.

축제문화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최선, 최고의 상품일 때 최고로 참되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다.

지역 축제는 지난 1995년 민선 지자체 단체장을 뽑기 시작한 때부터이다.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우수한 문화관광축제를 선별하여 지원한 것도 있지만 그 보다는 민선단체장들이 축제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했기 때문에 서로 프로그램 경쟁을 한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의 경제이론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물건을 살 때 그것의 필요성보다는 거기에서 얻어진 감동이나 즐거움을 산다고 한다. ‘취라기 공원’이 인기를 끌자 패스트푸드기업에서 햄버거에 공룡인형을 끼워 팔아 매상고를 올렸던 것처럼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모든 산업에 빠짐없이 스며들고 있다.

충남 금산은 인삼재로, 보령시는 머드축제로, 전북 무주는 자연자산으로 승부를 걸었다. 우리 속담에 ‘개똥참외도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 있다. 먼저 선수를 쳐서 지방문화를 이룩해

내는 곳도 많다. 함평 나비축제나 반딧불 축제 등등이다.

처음 본 연구자가 충남 당진에 면천진달래민속축제를 기획하여 추진하고자 할 1994년도 당시만 해도 축제 상품성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그것으로 무슨 별이가 될 것이냐는 생각이었다.

이런 축제가 올 해로 6회를 맞았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향토민속문화의 관광자원화에 관해 면천진달래민속축제를 중심으로 추진과정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 성과를 집어보고 향후 대책도 파악해보고자 한다.

II. 축제상품 및 프로그램 내용

1. 축제상품

1) 우리민족과 함께해온 진달래

진달래는 산성토양을 좋아하고 메마르고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 황폐해진 우리나라의 산에 가장 번성하기 쉬운 나무로 북으로 백두산에서부터 남으로 제주도의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잎보다 앞서 꽃을 피워 산을 온통 진분홍으로 물들인다.

과거 먹을 게 없어 궁핍하기 이를 데 없는 시절 허기를 달래는 먹거리로, 배가 고파 허겁지겁

* 민속지리학 박사, 면천초교 교사

뜯어먹던 우리 민족의 꽃이며, 겨우내 회색빛에 움츠러들었던 시각을 확 띄게 만드는 색채의 조화로움으로 인상 깊게 기억에 자리한 꽃이다.

우리 겨레는 오랜 세월을 두고 진달래와 애환을 함께 하며 살아왔다. 그 모습이 마치 수줍은 봄색시를 연상케 하며 온 봄의 정취를 한층 돋보이게 하는 꽃이다. 그래서 진달래는 자신보다 먼저 피는 꽃도 있지만 꽃소식의 대명사처럼 되어 버린 우리와 가장 닮은 꽃이다. 한때 무궁화가 북녘에서는 얼어 죽으므로 차라리 전국 어느 곳에서도 잘 사는 진달래로 국화를 삼자는 말까지 나온 적도 있을 만큼 우리 가슴속에 깊이 뿌리내려 함께 살아온 꽃의 하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진달래꽃과 뿌리로 술을 담아 먹었고 화전놀이를 했다. 음력 3월 3일 장작과 술을 냇가에 설치해 쌀가루를 지지고 그 위에 진달래꽃을 살짝 얹어 지져먹었으며 민간에서는 관절염, 신경통, 담 결릴 때, 한방에서는 기침, 고혈압, 월경 불순, 하혈 등을 할 때 처방했다.

또 진달래 하면 떠오르는 시가 바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고 그 외 많은 시문학이 면면히 내려온다. 그러나 과거 5공화국까지만 해도 북한의 국화(國花)라 하여 교단에서 진달래를 함부로 찬양할 수도 없었고 지금도 북한의 국화가 진달래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³⁸⁾

2) 축제상품으로서의 면천진달래민속

2001년도 문화관광부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행해지는 축제가 700여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많은 축제가 나름대로 지역성을 가지고 지역문화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이들 축제가 축제상품으로서 얼마나 가치성이 있는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특정인의 즉흥적인 발상에서 창출된 지역축제를 많이 접해 왔다.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에 의해 이벤트성 행사가 주를 이루면서 뜨내기 장사꾼들이 판치는 장소로 전락시켰다.

축제상품은 한 지역차원을 넘어 전국적인 차원, 세계적인 차원을 보고 가야한다. 전국민이 사랑하고 세계인들이 함께 보고 즐길 만한 것, 즉 축제상품이 무엇이나가 무척 중요해 그 상품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축제상품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 데 그것을 키워보고자 아무리 많은 예산을 지원해도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 좋은 상품이 필수적이며 그 좋은 축제상품이 발굴되었으면 집중적인 투자가 따라야 하고 전국, 더 나아가 세계에 홍보는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면천진달래민속축제는 진달래에 얽혀 있는 우리 선조들을 배우고 즐기는 삶의 자리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86호인 면천 두견주와 면천은행나무, 안샘, 아미산 등 진달래민속문화에 관련된 전설과 화전(花煎)놀이, 그리고 진달래 시문학, 그리고 진달래 음식을 소재로 하는 축제이다.

따라서 면천진달래민속축제는 진달래에 얽힌 민족정서를 토대로 정통성과 함께 다른 지역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지역특성이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있고 독특성을 갖춘 것이기 때문이다. 봄철 진달래, 벚꽃, 유채꽃, 철쭉 등 많은 꽃 축제가 있다. 그렇지만 면천진달래민속축제는 그런 꽃을 소재로 하면서도 전국 어디에나 있는 그런 진달래 꽃축제를 만들려고 추진하는 축제는 아니다. 무형문화재 86호인 면천두견주의 가치성과 그에 얽힌 진달래민속문화를 토대로 충효정신을 보듬어 내고 진달래와 함께

38) 북한의 국화는 1991년 4월에 함박꽃나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였던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목란을 국화로 공식 지정됐다.

해은 선인들의 삶과 정신, 그리고 그 문학과 음식을 먹고 배우는 축제이고 또 우리의 민족정서인 정(情)과 한(恨)으로 대변되는 한국인의 삶을 느끼고 체득하는 축제이다.

지난 제1~6회 축제로 그 가능성을 확인했고 또 성장 잠재력도 평가받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면천두견주 제조 시현)를 벌여 두견주의 맛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두견주에 얽힌

인물인 복지겸의 충(忠)과 그의 딸에 효(孝)에 정신을 심는 행사를 더욱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있다. 또한, 진달래에 얽힌 진달래 민속, 문학, 진달래 음식 재현 행사를 통해 우리 민족정서를 교육시키고 있고, 진달래 민속놀이를 통해 옛 선인들의 풍속을 체험시키며, 진달래 음식 재현 행사를 통해 진달래의 우수성과 약효성을 알리며, 진달래시문학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삶을 이해

<표 1> 연월일별 추진 내용

1995. 3. 면천-당진간 군도 절개지에 진달래 식재(3,000주)
1996. 3. 향토 발전을 위해 진달래를 심자는 “면천향진회” 태동
1996. 3. 면천면사무소, 이장단, 지도자, 부녀자 협의회와 더불어 진달래 심기 운동 전개(30,000주)
1998. 4. 당진뉴스와 더불어 군화(개나리→진달래), 군목(목백합→소나무) 바꾸기 운동 전개
1999. 6. 당진군 상징물이 군화 진달래, 군목 소나무로 변경
1999. 12. 당진 아미산 진달래 축제 기획 및 준비 위원회 발족
2000. 2. 당진 아미산 진달래 축제 추진 위원회 구성
2001. 2. 면천진달래민속축제 집행위원회 출범
2001. 3. 제1회 당진 군화사랑 당진군민 1인 1그루 진달래 심고 가꾸기 운동
2001. 4. 면천진달래민속축제 제1회 학술대회(이해준, 심정보, 김추윤, 김갑동, 이인화)
2001. 4. 제1회 면천진달래민속축제 개최
2002. 2. 진달래 공원 조성지 확보 및 정비사업
2002. 3. 제2회 당진 군화사랑 당진군민 1인 1그루 진달래 심고 가꾸기 운동 전개
2002. 4. 진달래 음식 및 조리법 특강(국립민속박물관 정현미 박사)
2002. 4. 제2회 면천진달래민속축제 개최
2003. 3. 제3회 당진 군화사랑 군민 1인 1그루 진달래 심고 가꾸기 운동
2003. 4. 제3회 면천진달래민속축제 개최
2003. 3. 제4회 당진 군화사랑 군민 1인 1그루 진달래 심고 가꾸기 운동
2004. 4. 면천진달래민속축제 제2회 학술대회
2004. 4. 제4회 면천진달래민속축제 개최
2004. 4. 10. 진달래 시화 및 그림, 글짓기 작품 전시회
2004. 4. 10. 면천진달래민속축제 기록사진 전시회
2004. 4. 10. 제4회 효심배우기진달래청소년가요제
2004. 7. 7. 제4회 면천진달래민속축제 발전방향 모색 및 결산보고
2004. 11. 30. 군비 1천7백만 원, 도비 3백만 원 확정
2005. 3. 26, 4. 6. 진달래동산 정비 및 진달래 묘목 5천 그루 식재
2005. 4. 15 ~ 17. 제5회 면천진달래민속축제
2005. 4. 15. 제1회 충효배우기 진달래 백일장 및 민족정서배우기 진달래 사생대회
2005.12.01 ~ 31. 면천진달래공원 진입도로 및 벤치 설치
2006. 3. 31. 당진군 전직원 당진군화 진달래 식목행사
2006. 4. 14. 면천진달래공원 조형물 제막식
2006. 4. 14. 이근배 시인의 진달래 문학강의
2006. 4. 14. 제2회 충효배우기 진달래 백일장 및 민족정서배우기 진달래 사생대회
2006. 4. 14 ~ 16. 제6회 면천진달래민속축제
2006. 5. 27. 제6회 면천진달래민속축제 결산보고 및 발전방향모색 토론회 개최

할 수 있도록 행사를 꾸리고 있다.

진달래는 청순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꽃인 동시에 우리 민족정서를 대변해 온 꽃이다. 이 꽃을 잘 활용할 경우 한국인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가치성 있는 축제 상품이다.

2. 행사 내용 분석

1) 기반구축 및 성장과정

축제의 시작은 1995년으로 1995년 3월 군도 절개지에 진달래 3천그루를 식재하고 1996년 순수봉사단체인 향토발전 진달래회(향진회)를 조직, 지역 기관 및 단체들과 진달래심기운동을 전개한다. 1998년 지역 신문사(당진뉴스)와 군화(개나리→진달래), 군목(백목련→소나무)바꾸기 운동을 전개, 1999년 6월 당진군 군화 진달래, 군목 소나무로 확정된다.

이에 축제 기획안을 작성, 1999년 12월부터 수차에 걸친 진달래축제 설명회 개최, 2001년 4월 14일 면천진달래민속축제 제1회 학술대회와 더불어 제1회 군화사랑 당진군민 1인 1그루 진달래심고 가꾸기 운동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진달래민속놀이(진달래장대끝에 세우기, 진달래꽃값이, 진달래방망이, 진달래꽃술싸움, 화전놀이)와 복지점 가장행렬, 진달래청소년가요제, 진달래시낭송대회 등의 내용으로 제1회 면천진달래민속축제를 개최한다.

그 이후 축제와 함께한 주목되는 행사 내용을 <표 1>과 같이 살펴보면 2002년 4월 진달래음식 및 조리법 특강, 2003년 제2회 면천문화유적유물 및 민속사진 전시회, ‘진달래먹고 물장구 치고’ 시집발간 기념회, 진달래 분제와 함께하는 진달래 시화전시회, 2004년 면천진달래민속축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2회 학술대회, 2004년 11월 축제군보조금 1천7백만 원 확정,

2005년 3월 군지원으로 진달래 5천그루 식재 및 면천진달래공원 정비사업, 2005년 제1회 충효배우기 진달래 백일장 및 민족정서배우기 진달래 사생대회(면천진달래공원, 200여명 참여), 2005년 12월 면천진달래공원 진입도로 및 벤치 설치, 2006년 3월 31일 면천진달래공원에서 당진군 전직원 진달래 식목행사, 4월 14일 면천진달래공원 조형물 제막식, 이근배 시인의 진달래 문학강의, 제2회 충효배우기 진달래 백일장 및 민족정서배우기 진달래 사생대회, 제9관으로 구성된 전시회 등이다.

그 내용을 연월일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프로그램 내용

(1) 행사 내용

제6회 축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축제 사전준비작업으로 3월초 면천진달래공원 임도 및 벤치, 화장실 설치사업(2천만원), 1,2차에 잡목제거 및 공원 정비작업, 당진군화 진달래심기 행사 등과 진달래 효심배우기 청소년가요제 및 진달래 사랑나누기 댄스페스티벌 등의 예심이 있다.

행사 내용은 <표 2>과 같이 3일간 지역유지들과 지역 및 외부지역 관광객들 3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첫째 날 「진달래꽃과 함께 배우는 당진군화의 날」을 주제로 진달래조형물 제막식과 제2회 충효배우기 진달래백일장, 제2회 민족정서 익히기 진달래사생대회가 있고, 둘째 날은 「관광객과 함께하는 진달래문학의 날」을 주제로 은행나무제, 진달래 효실천 경로잔치, 실버가요제, 이근배 시인의 진달래문학 강의, 진달래시와 함께하는 시의 몸짓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축하공연, 효심배우기 진달래청소년가요제와 민족정서배우기 진달래 댄스페스티벌이 있다. 셋째 날은 「관광객과 함께하는 진달래민속의 날」을 주제로 진달래 묘목나눠주기,

<표 2> 제6회 면천진달래민속축제 프로그램

1일차(금) : 진달래꽃과 함께 배우는 당진군화의 날

- <주제 : 당진군화와 함께하는 면천두견문화>
- 1:00 PM ~ 진달래 조형물 제막식
- 1:30 PM ~ 제2회 충효배우기 진달래백일장
- 1:30 PM ~ 제2회 민족정서 익히기 진달래사생대회

2일차(토) 관광객과 함께하는 진달래문학의 날

- <제1부 주제 : 면천두견주 전설과 함께하는 효실천 노인공경 한마당>
- 11:00 AM ~ 축제 및 지역평안 기원 진달래 은행나무 대제
- 12:00 PM ~ 진달래 효실천 경로잔치
- 2:00 PM ~ 진달래 실버가요제
- <제2부 주제 : 진달래 사랑, 진달래 민족정서와 함께하는 진달래 시문학>
- 5:30 PM ~ 진달래문학 강의, 이근배(한국시인협회 회장) 시인의 「한국에서의 진달래꽃」
- 6:10 PM ~ 진달래시화와 함께하는 시의 몸짓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 <제3부 : 진달래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 어울마당>
- 6:30 PM ~ 개 회 식(진달래 효행대상, 백일장 및 사생대회 시상, 공로패. 감사패 수여 등)
- 7:00 PM ~ 진달래 장대끝에 세우기, 진달래민속축제의 화합! 번영! 그리고 미래로!
- 7:10 PM ~ 축하공연
- 8:00 PM ~ 진달래 효심배우기 청소년 가요제
- 9:00 PM ~ 진달래 사랑나누기 청소년 댄스페스티벌

3일차(일) : 관광객과 함께하는 진달래민속의 날

- <제1부 : 주제 : 진달래 향, 그리고 진달래민속문화 이해하기>
- 11:00 AM ~ 행사준비 농악공연
- 11:30 AM ~ 군화사랑, 야생진달래 묘목 나눠주기(1 차)
- 12:00 PM ~ 쇠소리와 함께하는 민요공연
- <제2부 주제 : 진달래 음식, 그리고 진달래민속놀이 즐기기>
- 1:00 PM ~ 내포미륵 특별전, 진달래시화, 진달래민속축제 기록사진 순례
- 1:30 PM ~ 진달래민속놀이 체험(진달래꽃술싸움, 진달래꽃방망이, 화전놀이, 진달래꽃가지 던지기)
- 2:00 PM ~ 진달래 떡 만들기 체험 및 음식 즐기기
- 2:30 PM ~ 면천농가 전통두견주 담기 체험
- 3:00 AM ~ 면천두견주 시음회
- 3:30 PM ~ 우리 가락, 우리놀이 체험(장기, 윷, 제기 등)
- 4:00 PM ~ 면천농민의 애환의 한풀이 한마당
- 4:30 PM ~ 면천두견주 전설의 주인공, 복지겸과 영랑 가장행렬
- 5:00 PM ~ 진달래 떡 만들기 체험 및 음식 즐기기
- 5:30 PM ~ 군화사랑, 야생진달래 묘목 나눠주기(2차)
- 6:00 PM ~ 우리 가락과 함께하는 진달래장대 끝에 세우기
- 6:30 PM ~ 한풀이 춤과 함께하는 진달래꽃 무덤
- 7:00 PM ~ 진달래화합한마당 관광객가요제

진달래음식 나눠먹기, 진달래 꽃무덤, 진달래 장대끝에 세우기, 복지검 가장 행렬, 국악한마당, 관광객 노래자랑 등이다.

(2) 부대행사 내용

부대행사로는 판매 및 나눔행사, 체험 행사, 상설전시가 있다. 체험행사는 복지검 박술회 장군되어, 선사인이 되어(원시인 체험), 진달래민속놀이 체험(진달래꽃 제기차기/ 진달래널뛰기/진달래 화전놀이/두견주시음/진달래장기두기/진달래 윷놀이, 진달래 꽃가지 던지기), 진달래떡 만들기 체험, 전통면천두견주 빗기 체험상설전시가 있다. 상설전시는 총 제9관으로 있는데 제1관 당진·면천 향토문화유적관, 제2관 진달래음식관, 제3관 면천 선사유적관, 제4관 장승짜기 체험관, 제5관 면천·당진 민속관, 제6관 진달래관(분재전시관), 제7관 진달래민속놀이관, 제8관 축제관(축제기록전시관), 제9관 내포 미륵관(김추운 작가 초대전) 등이다.

Ⅲ. 성과 및 앞으로의 대책

1. 학술적인 기반 구축 및 피드백 과정

이 축제는 단시간 이루어진 축제는 아니다.

대략 6년간의 기반작업이 지역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지역의 향토문화자원을 학술적으로 사전에 연구하여 가치성 있는 상품 선정과 아울러 지역향토문화에 토대를 둔 기초가 탄탄한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있었다.

면천진달래민속축제 집행위원회에서 “진달래민속축제와 면천의 위상”라는 주제로 축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학술세미나를 추진하였고³⁹⁾, 2회의 강연회⁴⁰⁾와 피드백 시스템으로 매년 축제행사 후 결과보고 및 발전방향 모색을 6회째 해왔으며 “면천진달래민속축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4회 면천진달래민속축제 제2회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과정도 거치고 있다.⁴¹⁾

2. 축제 성과

1) 홍보면

축제를 준비하던 2000년, 2001년도에는 재향군민회⁴²⁾와 지역 초·중·등 동문회 회원들, 그리고 군내 유지 및 면내 주민 1500여 가구에 연 8천통 이상의 DM발송이 있었고, 2회 축제 후 구축된 축제 홈페이지⁴³⁾가 인터넷 곳곳에 안내되고, 2,3년 동안의 노력으로 진달래 검색에 상위 사이트로 알려져 있다. 또한 6회 때는 당진군청 홈페이지

39) 2001년 4월 14일 “진달래민속축제와 면천의 위상”이라는 대주제로 축제의 토대를 잡는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5명의 학자들이 각각 논문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공개토론을 가졌는데, 면천진달래민속축제의 문화자원(이해준), 내포지역에서의 면천의 위상(김추운), 면천읍성과 몽산성의 가치(심정보), 라말여초의 면천과 복지검(김갑동), 진달래의 민속적 가치(이인화) 등이다. (면천진달래민속축제집행위원회, 면천진달래민속축제기념 학술발표논문집 진달래민속축제와 면천의 위상, 2001.)

40) 제회 축제 때와 6회 때 있었는데 2회 때는 국립민속박물관에 근무하는 정현미 박사가 ‘진달래음식의 조리법’에 대해, 제6회 때는 한국시인협회 회장을 지낸 이근배 시인이 “진달래 문학”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41) 이 학술발표대회는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대주제를 “면천진달래민속축제의 현황과 과제”로 두고 제4회 축제에서 이루어졌다. 제1주제는 면천진달래민속놀이의 사상적 배경과 과제(김선풍), 제2주제 인본주의 심리학측면에서 본 내포문화권 관광증진에 대한 고찰(김현문), 제3주제 면천진달래민속축제의 현황(이인화), 제4주제 면천진달래민속축제의 활성화 방안(김경남) 등이 김인희 교수의 사로 이루어졌고 공개토론회가 있었다.

42) 당진군재경군민회, 당진군재인군민회 등

43) 면천진달래민속축제(<http://www.jindalae.co.kr>)가 문화관련 우수사이트로 조사되어 2003년 문화관광부에서 기록보존 승낙을 요청받았음.

지 메인창에 전면으로 게재되었고, 현재 당진군의 관광축제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서울의 당진군 홍보 전광판에 면천진달래민속축제가 홍보되어 큰 홍보효과를 보았다. 또한 언론에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신문(당진뉴스, 당진시대, 당나루신문)에 매년 4,5회씩 광고홍보가 이루어지고, 1회 때부터 조선일보 2회이후 계속 홍보가 되고 있고, 2006년도만 볼 때 연합통신에 2회, 동아일보 1회, 메트로 1회, 라디오방송 3회, 텔레비전에 4회(대전 MBC 4.20, 대전KBS1 4.15, 4.25, TJB 4.16), CNB 10차례 등에 홍보되었다.

또한 군 읍면 지역에 30여장의 축제 현수막이 계속 게재되고 있고, 시내버스차량에 50개, 행사내용 및 행사 알리는 대형 현수막, 애드벌룬, 예선 관련 행사 및 행사안내 전단지, 리플렛 등을 제작해 게릴라 홍보 등으로 홍보를 극대화하고 있다.

2) 재정면

제1회 기업체 및 지역주민들의 후원으로 6천만원 행사, 2회 행사 4천만원, 3회부터 6천만원 정도의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제 5회부터 도문예진흥기금 3백만, 군 및 면지원 2천만 원, 지역주민 및 기업체 협찬금 등으로 6회 때는 9천만 원 정도의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1회 1백 5십만원 적자, 2회 1천500만원 적자, 3회 900만원 흑자, 4회 1천만원 흑자, 5회 1천500만원 흑자, 6회 100만원 적자이다.

3) 내용면

내용면에서 추진위원들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추진도 알차게 이루어지고 있어 4회 때부터는 의식 행사 및 전체적인 행사내용이 매끄럽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해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 제1~3회

축제까지 공연 부분에 대부분의 행사비가 지출되었으나 차츰 축제본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에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6회 행사에는 진달래를 주제로한 제2회 충효배우기 진달래백일장, 민족정서 익히기 진달래사생대회를 키워 당진교육장의 축사 등 교육청의 협조를 이끌어내 2회에도 불구하고 28개 학교 400여명이 참가하는 행사규모와 행사취지 전단지 및 각종 답례품, 간식 등 잘 준비해 아주 성공적인 행사였으며, 효심배우기 진달래청소년 가요제, 진달래사랑나누기 댄스페스티벌 등은 수준이 전국규모로 성장하고, 상설전시관이 알차게 꾸며져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 또한 전단지, 리플렛 등이 아주 잘 제작되어 좋은 평을 받았다. 또한 진달래묘목나눠주기, 복지겸가장행렬 및 소달구지 타기, 소품제작, 장승깎기 체험, 민속놀이 등은 축제가 더욱 돋보인다.

특히 진달래 민속놀이의 재현은 지난해에 이어 독특한 면천진달래민속축제의 독특한 특징이 되고 진달래시낭송협회의 시의 몸짓은 좋은 반응을 보인다.

4) 이미지면

이미지면에서 축제 방향이 진달래 민속을 재현하고 민족정서를 정립시키는 취지로 다양한 진달래민속놀이 개발, 진달래문학성 접근, 문화유적 등의 다양한 전시는 면천진달래민속축제의 이미지로 구축되었고 두견주 전설에 얽힌 전설의 효사상 계승 발전, 그리고 진달래의 문학성과 진달래 관련문화 형성에는 투자를 하여야 할 입장이다. 특히 진달래문학상 제정, 진달래사진공모 등은 앞으로 전국으로 가야할 방향이다.

3. 문제점 및 앞으로의 대책

우선 재정면에서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요

구되는데 군 및 도청,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 대책과 수익사업, 그리고 대기업의 지원방향 등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내용면에서는 축제가 추구하는 방향인 진달래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더욱 체계적인 축제로 거듭나도록 축제의 내용을 알차게 구상해야 하고 충효배우기 진달래백일장 및 민족정서 배우기 진달래사생대회, 효심배우기 진달래청소년가요제, 진달래 사랑나누기 청소년 댄스페스티벌 등의 규모화와 더불어 진달래문학상 제정 및 진달래사진 공모 등을 전국규모화 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특히 진달래시낭송대회, 진달래시화전시회를 더 키우는 노력도 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1100년 된 진달래민속을 담고 있는 면천은행나무 대제를 상품화 하고 진달래를 연관시킨 다양한 민속놀이를 형상화하고 다양한 전시 및 문화 이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이 축제가 지향하는 교육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문화유적을 배우고 교육하는 장으로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러나 진달래음식 부수 등은 아직도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미흡해 진달래 떡 만들기에 진달래 꽃잎이 들어가지 않은 점이라든가 각 부스별로 진달래 음식을 정성들여 만드는 노력이 미흡했다.

조직면에서는 축제운영위원의 구성에 있어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 전문가 영입이 시급하고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타 우수 축제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며 주최 회원들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노력, 그와 관련된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축제장 및 면천진달래공원조성이 시급

한 입장으로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원을 완성해야 할 입장이다. 개발에 있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진달래를 소재로 한 진달래식물원으로 개발된다면 더욱 상품성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선 국내에 있는 연산홍들과 철쭉 품종들을 수집해 심고 가꾸며, 휴식 공간 및 진달래 친지인 공원이 하루 빨리 조성되어 한국민의 민족정서가 숨쉬는 땅이 되도록 구상에 있다.

IV. 결 론 : 행사가 주는 시사점

면천진달래민속축제를 중심으로 향토민속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를 제시해 보았다. 면천진달래민속축제를 축제상품 및 축제 프로그램, 축제의 성과와 앞으로의 대책으로 나누어 짚어 보았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면천진달래민속이 향토민속문화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전국에 진달래축제⁴⁴⁾는 많지만 진달래 민속축제는 없다. 면천진달래는 무형문화재 86호 면천두견주의 고장이고 이와 관련된 아미산, 안샘, 면천은행나무, 복지점의 가묘 등의 유적과 전설 및 진달래 음식인 두견주, 화전 등이 있다. 관광자원화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상품성이다. 지역에 기반을 둔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 민속, 인물 등을 토대로 학술적 기반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함평 나비축제같이 새로운 축제지만 전혀 마인드를 바꾸어서 신선한 충격을 던져준 것이라든가, 보령 머드축제, 금산 인삼축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많은 축제들이 문화적 전통의 토대가 무너진 이벤트성 축제로 한때 풍미해 전국에 700여개의 축제공화국이 되고 있다. 국적불명, 역사불명의 조잡한 이벤트성 축제 등이 성공하는 사례는 없

44) 대표적인 것이 여수 영취산 진달래축제, 강화도 고려산 진달래 축제 등이다.

다. 이들은 어떤 지속적인 지역문화 창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형문화도 지역의 정체성을 분명히 따져보고 해야만 한다.

또한 각 지역에서 지역문화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문화주체들이 있어야 한다. 면천진달래민속축제는 10여 년간 지역향토문화에 몰두해 온 기획가가 있고⁴⁵⁾, 그를 돕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순수민간단체인 향진회, 당진신인예술단 등과 면천생활축구회, 면천기동순찰대 등의 협조를 이끌어 냈기에 가능했다.

축제 내용에 있어서는 지역의 유구한 전통에서 비롯된 민족문화적 상식을 기초로 지역적 삶을 그리는 내용을 결합해 이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냄으로써 언론의 주목을 이끌어 냈다고 본다. 어떤 축제가 어떤 좋은 성과를 냈다고 그 프로그램을 금방 모방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 특성이 명확하거나 많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 지역의 프로그램을 함부로 모방할 수는 없다. 지역 특성을 깊이 알고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가능하다.

본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이 시대에서 세계로 갈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인가 깊이 성찰해보고 지역 향토문화자원의 상품성을 파악해 본 다음 축제의 취지를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축제전문가와 추진위원, 후원자 이렇게 3박자가 맞아야 성공적인 축제로 이끌어 갈 것으로 사료된다.

45) 본 연구자는 1994년부터 지역민속을 연구해 『주간 당진뉴스』 신문에 80여 차례 연재해 왔고 1996년 당진군 민속지표조사를 마을별로 했으며 『당진의 민간신앙』 『당진군지』, 『안섬풍어제』, 『기지사출다리기』, 『당진의 향토전래민요』 등의 책을 발간하는 등 지역연구를 해 왔다.